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 (PACS) 개소식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은 11월 16일 전염성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촬영한 디지털 흉부영상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독의뢰하고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영상판독시스템이다.

최근 보건소 및 각 시도의 결핵전문인력 부족으로 환자의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건소에서 인터넷으로 환자의 흉부영상을 판독 의뢰하고 판독센터에서 결과를 회신할 수 있는 PACS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효과적인 결핵관리는 물론 전문인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기존의 필름이 필요없는 영상저장전송시스템으로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화 하여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네트워크를 통해 진찰실, 병동 등으로 보내 실시간으로 환자의 영상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중국 연변자치주 결핵방치소 관계자 방한, 협회 방문



중국 길림성에 있는 조선족 연변자치주 결핵방치소의 의사와 간호사 5명(박상수, 최일순, 윤연희, 맹련숙, 최창호)이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협회를 방문했다. 이 기간 동안 협회 외에도 결핵연구원, 국립마산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영등포구보건소 등을 방문, 선진 결핵관리 현장을 견학하였다.

고등학생 결핵집단 발생관련 대책회의 참석

최근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 집단으로 결핵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20일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과 전파, 조기차단을 위한 결핵관련 전문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박병하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김상욱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 보건급식과 서기관, 김희진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기술협력부장, 김규환 대한결핵협회 검진과장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집단발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문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